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과 갤러리가 만났다. 영무토건이 광주 상무지구에 문을 연 김넷과 아트센터(김넷과 3)에서는 10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Composition V'

스크린 골프장과 갤러리가 만나다

500여명의 널찍한 공간으로 들어서면 먼저 그림들이 눈에 띈다. 김점선·김병중 작가의 마음 따뜻해지는 판화 작품이 보이고 황영성·한희원·진원장·송필용·하루K 등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 걸려 있는 작품은 50여명 작가의 100여점.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망라했다. 한 쪽 공간은 다양한 기획전이 열리는 장소다. 광주 상무지구 영무에다 스크린골프연습장에 8일 문을 여는 '김넷과 아트센터(김넷과 3)'의 풍경이다.

'김넷과'는 영무토건(대표 박헌택)의 문화 브랜드다. 김넷과는 본격적인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예술을 생활 속에서 접하는 게 의미있다는 생각에 우리 일상과 밀접한 장소와 결합한 '문화공간'을 열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인동의 오래된 병원을 개조해 문을 연 첫 '김넷과'는 다채로운 전시를 비롯해 음악회, 강연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광주의 대표 문화 아지트로 자리잡았다. 양동에 지역 작가(손봉채·신호운)가 작업실로 활용중인 '김넷과2'가 있고, 지난해 '아트호텔'을 표방하며 부산 해운대에 문을 연 영무파라드호텔에서는 '더 코스 앤 김넷과'를 운영중이다. 11월 나주 혁신도시에 문을 여는 '김넷과 4'는 100호 이상의 대작을 전시

영무토건 상무지구 '김넷과3' 오픈 지역작가 작품 100여점 전시 허달용 등 초청 기획판매전도

하는 곳으로 모델하우스에 동지를 틀 예정이다.

'김넷과 3' 이 들어선 곳은 36층 440세대를 갖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상가 상무 영무 에다움(서구 시청로 64) 빌딩이다. 3층에 자리한 골프연습장은 넓은 평수에 비해 타석을 31석만 배치했고, 대신 확 트인 오픈 공간의 장점을 활용, 작품을 곳곳에 배치했다. 안내 데스크에는 '구름작가'로 유명한 강운작가의 대형 작품 2점이 나란히 걸려 있다. 라커룸, 휴게 공간 등은 물론 이용자들이 연습을 하는 스크린 앞 타석 앞 뒤 벽면에도 그림을 걸었다. 전시작들은 모두 박헌택 대표의 소장작으로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선별했다.

넓은 창으로 평화공원이 내려다보이는 공간은 다양한 기획전이 열리는 장소다. 박 대표는 이곳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실제로 판매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기획전은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품 위주 전시로 꾸민다. 이번 개관전에는 허달용·신호운·박성배 작가를 초청했다. 하루 한 점씩 고양이를 그리고 있는 허달용 작가는 소품 수집품을 내놓았고, 30만원 선에 판매할 예정이다. 박성배 작가가 곰을 소재로 작업한 조각품은 100만원에 판매한다.

전시장은 연습장 이용객, 아파트 거주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림을 감상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며 전시작품들의 렌탈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골프장 이용객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간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클래식 그룹 '김넷과 트리오'의 공연도 추진 중이며 한달에 한번 휴무일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헌택 대표는 "서울 등 전국에서 인기를 모으는 공간을 살펴보다도 요즘에는 갤러리나 미술관 단독 공간 보다는 실생활과 어울린 장소와 결합한 문화 공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미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객과 일반 시민 등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조각보의 현대적 해석

박순천 섬유패션워크숍, 15일까지 LH휴량갤러리

한국의 미를 잘 보여주는 '전통 조각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나는 기회가 마련됐다. 조각보가 갖고 있는 조형미를 바탕에 깔고, 작가만의 새로운 관점을 집어 넣어 작업한 작품들이다.

박순천(조선대 섬유패션디자인 전공 교수) 섬유패션워크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LH휴량갤러리에서 열린다.

'The Integrity of Novelt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보를 주제로 한 작품 10점과 패션 일러스트 작품 등 모두 19점의 작품이 나왔다. 전시작들은 조각보를 재료로 삼고 있지만 그림이 가미돼 입체감과 함께 회화적 느낌도 강하게 풍긴다.

박 작가는 직선적인 면 분할과 색채 등에서 현대 미술의 기하 추상과 유사한 조각보를 다채롭게 해석했다. 전시작들은 실재 천과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한 회화 등이 어울려 독특한 화면을 구성한다. 다양한 조각전을 일일이 바느질해 화면에 부

착하고, 겹침 효과를 통해 입체적인 조형감을 만들어냈다.

작가는 화면 자체를 조각보처럼 분할해 다양한 색을 칠했다. 오방색이 갖고 있는 강한 원색 대신 부드러운 느낌의 파스텔톤 색채를 사용해 관람객들이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작품에 사용한 천은 한복을 제작하고 남은 자투리 원단을 사용했다.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자투리천을 주소재로 하되 적합한 색깔의 천이 없을 때는 직접 색을 배합해 그림을 그려넣는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박 작가는 성신여대 대학원(의류학 박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미술학 석사)을 졸업하고 이태리 마라곤니 의상예술학교를 졸업했으며 신세계백화점 여성복 디자이너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회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칠면조가 대도시 광주에 가면...

K아트, 美작곡가 브루스 아돌프 음악극... 13일 광주문예회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음악극이 관객과 만난다.

K아트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미국의 작곡가 브루스 아돌프의 음악극 '칠면조가 대도시에 가면(사진)'을 아시아 초연으로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와 광주 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작품으로 미국의 협조하는 작곡가 브루스 아돌프의 2개의 음악극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음악극은 바다생물들의 이야기인 '오세노포

니(Oceanophony = Ocean 바다 + Phony 소리)'로 바다에 내리는 눈, 북어, 스프라이트 패러피쉬, 사랑에 빠진 해마, 문어, 산호초 등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두 번째 작품인 '칠면조가 대도시에 가면'은 사막에 사는 칠면조가 뉴욕 도시에 가면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극이다. 2개 작품 모두 K아트의 예술감독인 박승유의 지휘와 K아트의 연주, 노래 이션으로 꾸며지며 일러스트와 영상이 함께 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음악인들이 모여 지난 2016년 창단한 K아트는 '영화·명곡이 있는 바로크 갤러리', '베



토벤 Flashback' 등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왔으며 지난해에는 스트라빈스키의 총체예술극 '병사 이야기'로 호응을 얻었다. 5세 이상 관람가. 전석 무료 관람. 사전 예약 필수. 문의 010-5811-61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14~29일 '은새암 랜선 북살롱'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작가와 함께 하는 '은새암 랜선 북살롱(이하 북살롱)'을 개최한다.

첫 북살롱은 14일 오전 10시 김항심(사진) 작가와 함께 '모두를 위한 성교육'을 주제로 열린다. 김 작가는 최근 '모두를 위한 성교육'을 발간했다.

18일 오전 10시에는 '잊혀진, 잊을 수 없는' 주제로 임인자 작가와 함께한다. 임 작가는 현재 충장로에서 소년의 서를 운영하는 책방주인이자 '충장로 오래된 가게',

'동구의 인물'을 발간했다. 북살롱 마지막 순서로 '터다(최설아) 작가의 '터다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수다'(29일 오후 6시30분)'이 펼쳐진다. 최근 '터다 마음 가는 대로'를 출간한 터다 작가는 인스타그램에서 11만 독자의 공감과 사랑을 받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 /전은재 기자 ej6621@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할인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